

# “밤에 만나는 무형유산”...진도 굿나잇 야행

오는 30일 철마광장·시가지 일원

이동형 퍼레이드·플래시몹 ‘결합’

247명 참여 강강술래 한마당 주목

진도군이 오는 30일 진도읍 철마광장과 주요 시가지에서 ‘2025 진도 굿나잇 야행’을 개최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 청 공모사업인 ‘국가유산 야행’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진도의 대표 무형유산을 주제로 지역 예술인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식의 야간 행진(퍼레이드)으로 진행된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체험 활동과 공연 속에서 진도의 전통이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속문화예술인과 관람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문화유산 여행의 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행진(퍼레이드)과 참여형 플래시몹이 결합된 특별 무대이다. 남동리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대취타 행렬(‘진도개야 달맞이 가자’)을 시작으로 진도의 대표 민속예술인 다시래기, 진도북놀이,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등이 거리 곳곳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각 무대는 단순히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라 관람객이 읊 시가지를 이동하며 직접 참여하는 ‘유동형 무대’로, 행렬의 리듬에 따라 관객이 자연스레 합류해 춤추고 노래하는 플래시몹형 참여 예술로 확장된다. 축제의 대미는 247명의 공연자가 함께하는 ‘진도 강강술래 한마당’이 장식한다. 특히 진도의 247개 섬을 상징하는 247명의 구성원과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강강술래는 공동체의 화합과 생명의 순환을 노래하며, 야행의 밤

을 장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도 야-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가와 주민이 만든 수공예품, 향토 상품(굿즈)을 선보이며 ‘소리꾼과 한 잔 얼췌술다’, ‘진도노리 한마당’, ‘유퀴즈 온 더 진도’, ‘나도 진도 스타’, 흥주 하이볼과 전문 디제이(DJ)가 함께하는 ‘흥주 전자댄스음악(EDM) 클럽’ 등 이색적인 내용들로 운영된다. 공연뿐만 아니라 진도의 감성과 맛을 담은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31일 의신면에 있는 오토 캠핑장에서 진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힐링족을 위해 ‘진도 캠핑&

버스킹존’을 운영한다. 버스킹 공연은 오토 캠핑장 이용객이 아니어도 관람이 가능하며, 희망자에게는 한정판 ‘굿즈 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오토 캠핑장 이용 신청은 진도군 공공캠 또는 윤림공원 누리집(<https://www.jindo.go.kr/sambyeolch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진도에서 펼쳐질 이번 ‘진도 굿나잇 야행’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지역 예술인, 학생,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살아 있는 국가유산 야행”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올림과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함평군이 지난 20일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 등이 센터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행정·복지 한곳에”...함평읍 어울림센터 준공

주민참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속가능 지역 공동체 모델

함평군이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한데 모은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준공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열고 6년에 걸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결실을 주민과 함께 기념했다. 준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이계

호 국회의원, 이남오 군의회 의장, 군의원, 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테이프 커팅, 사업 성과 영상 상영, 공연 등이 이어졌다.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207억원이 투입된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행정·문화·복지·예술 기능이 융합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다. 1층에는 읍사무소·주민자치센터·건강증진실·공동보육시설이, 2층에는 대회의실·공유주방·동아리실 등이 들어서 교육·문화·소모임 등 다

양한 주민활동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치활동과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를 갖춘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주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함평’의 상징”이라며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 영광군, 독감 예방접종 시작

영광군은 23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반 군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대상은 ▲55~64세 ▲14~18세 ▲50세 이

상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AI 가금농장 종사자이며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신분증과 증명서류 지참 후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6개월~13세), 임신부는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일반 군민은 9천500원 유료접종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독감 유행이 빨라진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신안군 ‘노인의 날’ 기념식 성료

500여명 참석·유공자 표창 등

신안군은 23일 “전날 압해읍 군민체육관에서 ‘2025년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4개 읍·면 경로당 노인회장과 복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한 풍물놀이와 댄스 공연이 펼쳐졌으며, 본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부대행사로는 ▲신안군복지재단의 돌보기

안경 나눔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예방 홍보 ▲우울·자살예방 캠페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홍보 등이 진행돼 참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득·건강·돌봄 등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 목포극장, ‘나이롱 극장’으로 재개관

31일 개관식...이틀간 문화행사

100년 역사를 간직한 목포극장이 새로운 이름 ‘나이롱 극장’으로 재개관 한다. 개관 행사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오후 3시부터 목포극장과 로데오광장(목포시 영산로 59번길 30)에서 열린다. 영화관의 추억을 되살리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로 꾸며진다. 개막식에는 문화예술계와 지역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영화 제작보고, 제작식 등이 진행된다. 목포극장 내·외부는 과거 상영작의 간판 그림과 영화 관련 공간으로 꾸며져 옛 감성을 되

살렸다. 함께 운영되는 ‘영산우드 라운지 판파라’는 서남해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음악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목포와 몽골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장가가는 길 에피소드’로, 이후 2편과 애니메이션 ‘파루치 아라치’도 제작이 예정돼 있다. 최영천 목포극장장은 “목포극장이 영화뿐 아니라 음악과 생활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영화 ‘장가가는 길’이 30만 관객을 넘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배추 지켜라” 해남군, 병해충 긴급 방제 돌입

무름병·뿌리마름병 확산 대응

2억 투입·5천ha 전역 약제 지원

해남군이 최근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배추 재배지에서 병해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 약제 지원에 나섰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 최대 배추 생산지인 해남군은 정식기인 9월 이후 지속된 비로 인해 무름병, 뿌리마름병(뚝박병) 등 습해와 병해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이에 따라 후기 생육 불량과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은 국비 등을 포함해 2억원의 긴급 방제비를 확보하고, 배추 재배면적 5천44ha 전역을 대상으로 무름병 방제약제를 지원한다.

총 500㏩들이 6천688개 약제를 농가에 배부하고 즉시 현장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현장기술지도반을 운영해 농약의 안전 사용법과 후기 생육 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배추 무름병은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예찰을 강화하고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하며, 병해충 발생 시 등록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피해 확산을 막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 약제 지원은 병해충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고 배추 생육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농가의 약제비 부담을 덜고 병해충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10월 마지막주 영암 로토포데이 즐겨요”

25일 매일시장·달맞이공원

할러윈 축제·공연·체험 가득

영암군은 23일 “오는 25일 영암읍 매일시장과 달맞이공원에서 ‘제4회 영암 로토포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청년문화를 결합한 지역축제로, 할러윈과 가을밤을 주제로 한 공연·체험·아시장이 마련된다. 매일시장에서는 불쇼, DJ공연, 통기타 버스

킹, 색소폰 공연 등이 열리고, 체험 부스에서는 할러윈 안경·무드등·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달맞이공원에서는 가족 미니운동회, 사일런트 디스코, 달빛시네마 영화 상영이 이어진다. 또 청년 파머스마켓에서 지역 농산물 9종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가을밤 감성과 가족 참여가 어우러진 축제”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